

불타던 사랑같이 급하고 격렬하던 여름이 끝
나간다. 아직 남은 것은 여름의 잔해같은 태풍의
소식일 것이다. 피야벌에는 가을 냄새가 묻어
고 밤바람은 문득 차갑기조차 하다. 조금씩 바닷
물이 차가워지고 백사장에는 소란스러웠던 피
서객들의 들뜬 목소리들이 물거품처럼 남아 있
다. 누가 모르겠는가? 뜨거운 여름이 있었기에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여름의 노역과 인내가 과일을 여물게 하고 곡
식들을 알차게 만든다. 그렇지만 누웠없는 우박
과 풍우에 과일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고 꽃잎들이
이 처참하게 찢기기도 한다. 누군가는 물놀이로
나갔다가 빠져 죽고 어디선가 물이 넘쳐 산사태
가 가고 집이 떠내려가기도 한다. 해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만 그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똑같은 이가 두 번 죽는 것도 아
니고 같은 과일이 두 번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
는다. 여름은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듯 불행에
대해서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무상한 일이나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다. 여름
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웠다. 태양이 황도를 걸
어와 세상에 여름을 선사할 때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달아난다. 마음에 일어나는 불길
과 몸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여름에 가장 거세다.
때로 추억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추억을 위한 행
로가 오랜 고통과 상실 속에 파묻히게 한다. 가



불자 세상보기

문 형 렬

소설가 · 본지논설위원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죽이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여
름에는 너무 흔하다. 내년 여름에도 또다른 이에
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불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찾게 된다. 마음의 멈춤이며 몸의 한적함을
만나기 어렵다.

불길이 널리 퍼지면 재난이 뒤따른다. 사람들
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고 앞날을 걱정하기 때
문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두 번 다시 여름이 돌
아오지 않을 듯이, 최후의 여름을 즐기 위해
어려서부터 불길을 한껏 지핀다. 태양의 움직임
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박한 변화

속에서 어떤 이는 즐거운 기억을 가져올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기도 할
것이며 영영 세상과 이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행복에 눈이 멀면 삶에 두려움이 없고 현상이 영
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지금 행복하다면, 지금과 똑같은 마음과 몸을
유지한다면, 행복도 똑같이 거둘 것이라 믿
는다. 여름은 우리를 감정과 인상과 감각으로 내
몰고, 가을이 오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마음의
그늘에 걸리게 만든다.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추억하는 이들은
그 좋은 시절이 바로 행복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라. 송나라 때의 무문 혜개(無
門 慧開) 선사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것
이 좋은 시절”이라고 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여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해 여름,
나는 화려나루 꽃잎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 이국
의 거리 속에 있었다.

머리 위로 북풍 떨어지고 발 아래로 밟히는 회
화나무 꽃잎을 보며 나는 문득 슬퍼하곤 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이 솟음을 날려보내듯이 솟
구치는 슬픔을 빠르게 몰아낼 수 있다”고 부처
님은 가르치셨지만, 나는 솟구치는 슬픔을 몰아
낼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올 여름에 나는 지
난 해 여름의 슬픔을 다시 떠올려 본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인간의 애처로움에서 불가해한 슬
픔이 비롯되었는지. 아제 벗었던 신발을 오늘 다
시 신어보든.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가을이 온다 해도
여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듯 9월에도 태풍이 찾아오고 마른 번개가
바다를 비출 것이다.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멈춰서서 자연의 변
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몸을 기
울여 바라보자. 대자연이 주는 상처처럼 큰 스승
은 없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좋은 시절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다
려 본다.

불자의 눈

관람료 문제 '답' 내놓아라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 징수가 국민적 저
항에 부딪치고 있다. 관람료 징수를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
체가 지리산 천은사를 고발했고 해인사와 법주사도 환경단
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사실 관람료를 놓고 사찰과 시민단체
가 부딪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 초
공원입장료 징수를 전격 철폐할 때에 불교계에서는 관람료
와 관련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았다. 그러나 조계종도 정부도 관람료 징수의 지속여부 검토와
대안 모색 등에 능동성을 부여했다.

이제 단종 관광 철을 앞두고 관람료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
를 것으로 보인다.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뒤로 꾸준한 관람료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쪽을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계종 총재 모인인 금강회와 보림회가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두 모임이 내놓은 총 4단계에
걸친 대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또 불교미래
포럼이 토론회를 통해 관람료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한 것도
주목된다. 토론회는 관람료 문제의 핵심과 대책마련의 기조
를 충분히 도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단과 정부가 나설 차례다. 불교계에 형성돼 있는
어른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관람료는 사찰의 수
익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한 필
수 재원임에도 이를 두고 마찰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통사 관광 '월1회 제한' 재고려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
혔다. 천태종은 2003년 남북합작으로 영통사를 복원했고 올
6월에는 복원과 횡수 제한 없는 자유왕래를 합의했다. 천태
종은 기본적으로 주 3회에 걸친 당일코스 성지순례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통일부였다. 속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일부는 천
태종에 월1회 제한을 통보했고 '변형된 관광'이라는 용어로
천태종을 자극하기도 했다.

천태종은 8월 25일 성령을 통해 '통일부가 남북의 순수한
종교문화 교류를 방해하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지순례 제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통일부가 월1회 제한 조치를 철회
하지 않는 한 오늘(25일)을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천태종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6일이 지난 31일까
지 통일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화를 아예 안하겠다는
것인지 나름대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다. 통일부도 월1회 제한조치를 내놓은데 충분한 사정이 있
을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와 천태종과의 합의절차를 거치려
는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이제 천태종이 조공수를 내
놓은 만큼 통일부도 불자와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7.정교유착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 이용한 특정종교 결합 시도 중단해야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에 편향됨으
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대립을 조장하
는 사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명박, 정장직, 문봉주
의 경우와 같이 공직자가 종교계를 직접 찾아가
공직 신분을 과시하거나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
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올해 1월 26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성시화운
동 법안심판 감사예배'에서 한 발언도 이와 유
사한 경우이다. 그는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
으로 인천은 전 세계에 파송한 1만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도시로 세계복음
화의 관문이 될 것이며,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천에 성시화운
동본부가 설립된 것을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해, 인천시를 끌어들이는 성시화
운동을 축하하고 특권한 바 있다. 시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경우와 흡사한 예이다.

물론 공직자가 먼저 종교계로 달려가는 경우
와는 반대로, 종교인이 권력을 향해 손짓하는
정교유착의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조찬기도회'로서,
1966년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시작해 2003년

에 문공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매년 한
차례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
다.

그러나 유신독재 찬양 등 역대 정권의 '정치
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개신교
의 적극적인 '권력 교두보' 확보 전략의 일환이
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가를 위한 기도는 종교계 전체가 따로따로
알아서 할 일이다. 최고 권력층을 초청한 개신
교인들만의 기도행사를 굳이 공익법인으로 하
기 한 것은 종교와 국가권력의 결합이란 인상이
질다.

공직자의 능동적인 종교편향 행위의 두 번째
유형은, 선교를 염두에 두면서 공적인 일에 특
정종교를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2003년 12월 이국진 당시 예산경감총장상은 경
찰청사 옥상에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예배공간
을 마련해 주며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불
교신도들은 "서장이 '성시화운동본부'에 참여
하는 등 특정종교에 적극적이네 어떻게 법회 예
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알
게 모르게 크다"고 말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했
다. 개인적으로 무심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

도급 인사로서는 결
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도 틀림없다.

더 노골적으로 종
교를 공공업무에 연
결시킨 예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경우
일 것이다. 2006년 9
월 27일 성북구는
"지역의 종교단체와
관이 하나가 되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종교단체가 모두 교회인
것으로 밝혀져 숨은 의도가 선교가 아니냐는 의
심을 샀다. 추진기구 이름도 '교(敎)-동(洞)협의
회' 즉, 교회와 동사무소의 협력체임이 드러나
복지행정을 방치한 선교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
할 수 없었다.

'교동협의회'는 그해 8월 7일 서 구청장이 추
진을 지시·독려한 후 직원들이 성북구 전체
260개 교회를 일일이 방문하여 그 중 84%인
218개 교회가 동참하는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반면에 성북구 내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는
데도 사찰연합회장 스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면
죄부를 삼으려 했고, 천주교나 원불교 등 다른

교단은 아예 접촉이나 상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 구청장은
"교회의 맞춤형 복지가 복음으로 연결되면 결
국 교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복음사업이
아니겠느냐"며 구의 복지행정을 선교의 수단으
로 삼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평소에도 핸드폰으로 선
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식 석상에서도 자
신의 종교관을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하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자손인
여호와가 보낸 민선 구청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등 선교활동을 했다. 정신 나간 사람
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심부름꾼보다 개인교 전도사임을 앞세울 수 있
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불교계는 12월 20일 성북구청 앞에서 규탄대
회를 열고 "차라리 공직을 떠나 장로 역할에 충
실하라. 아예 이스라엘에 가서 살라"며 공조
직을 이용한 노골적인 선교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했다.
다행히 불교계의 항의를 받아들여 '교동협의
회'를 해체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없이는 이런
불상한 행태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국
민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공직자의 균형감각은 꼭 검증되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
는 능력은 공직자 개인의 대오각성을 기다려서
필 성립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있을 때 국민
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
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 없이 성공적인 업
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
야 한다. 마치 바다(국민) 없이 배(공직자)를 띄
울 수 없듯이.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리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방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하는 이유(필요)가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사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태양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조선시대 친족,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책자 안내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중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